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4년 3월 24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마태복음 5장 3절

설교제목 :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늘부터 팔복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팔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팔복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팔복을 복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팔복은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임한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해도 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팔복은 복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3절을 봅시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원문과 한글성경의 번역이 좀 다릅니다. 원어 성경에는 ‘복이 있나니’가 서두에 나옵니다. 나머지 팔복이 모두 같은 구조입니다. ‘복이 있나니’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 다음이 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서 축복의 대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축복의 내용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입니다. 원문대로 다시 제가 새롭게 번역해 보겠습니다. **3절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복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심령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심령은 ‘프뉴마’입니다. 영이란 단어입니다. 성경적인 영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영과 혼의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영’(프뉴마)이란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실은 영이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영이 없다, 영이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성령이 내주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존재, 영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는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영과 혼과 몸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혼) 속에 성령이 계시는 몸이냐, 자신의 존재 속에 성령이 없는 몸이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존재 속에 성령이 계시는 자입니다. 그것이 심령이란 표현입니다. 심령을 마음으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생래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성품적으로 심령이 가난해도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이란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 혹은 거듭난 자의 성품입니다.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전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존재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문의 가난함은 물리적 가난함이 아닙니다. 본문의 가난은 헬라어로 프토코스인데, 철저하게 가난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입니다. 헬라어의 가난한 자의 의미를 갖는 것이 대개 6개의 단어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준의 가난, 절대적 가난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프토코스합니까? 왜 절대적으로 가난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미 현존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까? 회개한 자입니다. 회개한 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보통

죄를 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자신의 모든 소유권과 사용권을 예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의 소유권을 완전히 예수님께 넘겼기에 자신의 소유권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존재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존재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프로코스’는 물리적 가난함이 아니라, 존재론적 가난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존재론적으로 가난한 자이기에 실제로도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소유권을 모두 하나님께 이전한 삶입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이전은 곧 사용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이전되었다는 것은 지갑의 회심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돈을 쓸 때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율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위해 돈을 쓰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한 만큼 남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검소입니다. 검소함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자라면 그만큼 내 안에서 가난함이 자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만큼 검소해지고, 더 검소해지고 끝이 없습니다. 가난하면 가나할수록 영적으로 더욱 행복은 자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를 위해 살수록 불행해 집니다. 남을 위해 살수록 행복해 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입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팔복에 대한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심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가난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4) 그리스도인은 존재론적으로 왜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 5)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실제적인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하나님 나라는 나를 위해 살수록 불행하고 남을 위해 살수록 행복해 집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은 실제적으로 검소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검소해야 합니까? 남을 위해 섬기고 나누는 삶이 행복입니다. 혹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